

129통의 편지로 옛보는 역사의 이면

우편함 속 세계사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 지음, 최안나 옮김

요즘은 손글씨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손편지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편지 쓰기가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15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편지의 전성시대라 해도 무방할 만큼 편지는 주요 소통 수단이었다. 종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우편배달부를 비롯한 우편 시스템이 갖춰진 덕분이었다.



사실 편지는 가장 오래된 통신 매체 가운데 하나다. 인류 이래 사람들은 편지 쓰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점토판은 물론이고 파피루스에도, 양피지에도 편지를 썼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편지라 할 수 있다.

고대 편지를 일컬어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고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편지는 살아남아, 그것의 주인공의 삶을 말해준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인류사는 편지의 역사라 해도 무방하다.

히틀러에서 피카소, 람세스 2세, 안토 체호프, 체게바라 등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편지를 묶은 책이 나왔다. 영국 출판대상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짧은 스타린'의 저자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가 쓴 '우편함 속 세계사'는 모두 129통의 편지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편지로 보는 세계사라 할 수 있다.

편지의 저자로는 위에서 언급한 인물 외에도 폭군, 여배우, 황후, 작가, 시인 등 다양각색의 사람들이다. 시대로는 고대 이집트, 로마와 현대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국가, 인종을 아우른다. 주제 또한 사랑, 가족, 창조, 용기, 발전, 전쟁, 우정, 품위 등 다양하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보낸 연애편지는 연인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 1796년 2월 24일자 편지는 이탈리아에서 전투를 치를 때 쓴 편지다.

"어서 돌아오시오. 미리 말해주지만, 만약 당신이 늦어지면 나는 병이 들고 말 거요. 피로와 당신의 부재는 내가 견디기에 너무 큰 고통이요. 당신의 편지가 나의 일상에선 큰 즐거움인데, 그런 즐거움이 있는 나날이 많지 않소."

전쟁터에서 한가하게 이런 편지를 쓸 정도면 천하의 나폴레옹도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안달이 난 보통의 남자임을 보여준다. 나폴레옹은 한동안 답신이 없는 조세핀에게 "당신의 편지가 나의 일상에선 큰 즐거움인데 그런 즐거움이 있는 나날이 많지 않소"라고 고백한다.

고통의 삶을 그림으로 녹여냈던 프리다 칼로가 남미 벽화운동의 선구자 디에고 리베라에게 보낸 편지는 열정적이고 감성적이다. 두 사람은 후일 이혼했지만 프리다와 디에고의 작품은 멕시코 국가 예술을 형성하는 데 기반

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연에게 보낸 2018년 5월 24일자 편지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당시 트럼프 편지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개인적 외교력이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정치인인 꿈도 꿀 수 없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책에는 프란츠 카프카가 막스 브로트에게 보낸 작별 편지, 윈스턴 처칠이 아넬 클레먼타인에게 보낸 편지, 작가 에밀 졸라가 프랑수아즈 펠리스 포르에게 보낸 편지 등도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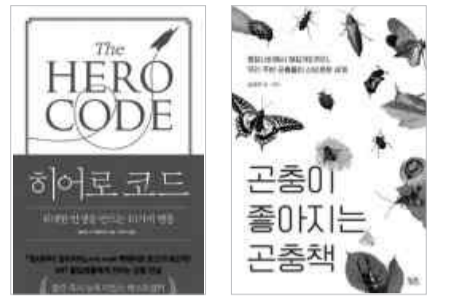
한편 저자는 서문에서 바이런 경의 말을 인용하며 "편지 쓰기는 고독과 좋은 동행을 결합하는 유일한 도구"라는 말로 의미를 부여하며 "편지 모음을 읽는 이들이 그 속의 용기, 아름다움, 진정성에 감탄하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시공사·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하어로 코드=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툰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군의 전설 맥레이브 장군의 신작. 용기, 겸손, 희생, 인내 등 저자가 전장에서 발견한 10가지 영웅의 덕목 '하어로 코드'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 10가지 치들이야말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성의 토대이자, 명예롭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열린책들·1만4000원>



▲공중이 좋아지는 곤충책=매뚜기 선생님과 알려진 김태우 곤충학자가 하늘 위, 풀 위, 나무 속, 땅 속, 물가 그리고 어두컴컴하고 따뜻한 인간의 집까지, 우리 주변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곤충들을 소개한다. 오랜 시간 곤충을 연구해온 저자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 72종을 엄선해 저마다의 복잡하고 놀라운 생활사를 그려 보는 책. <공리·1만8000원>



▲무엇이 우주를 삼키고 있는가=현대 물리학의 거장인 폴 데이비스가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주를 탐구하면서 떠올린 30가지 주제를 간결한 언어로 정리한 우주 안내서. '우주는 어떤 모양일까?', '시간 여행은 가능한가?' 등 매력적인 가능성을 품은 질문을 아우른다. 우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저자가 지금껏 인류가 밝혀낸 실체와 우주가 침묵하고 있는 비밀을 밝혀 낼 희망을 담았다. <번니·1만6800원>

▲함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함스부르크는 중앙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와 극동 아시아까지 방대한 영토를 지배한 가문이다. 중앙 유럽 분야의 최고 전문가 마틴 래디는 함스부르크 가문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10세기부터 왕조가 몰락하는 20세기까지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에 함스부르크 가문이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까치·2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플라스틱 인간=주인공 제임스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생수를 마시고, 샤워를 한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후 커피를 한 잔 들고 회사로 향한다. 그런 그가 어느날 플라스틱 인간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낳았다. 왜 하필 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동화작가 안수민이 그려 '편리하다'며 무분별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보낸다. <국민서관·1만4000원>

▲신화 속 한자, 한자 속 신화: 자연을 편=한자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딸들을 위해 평범한 직장인 김필 작가가 딸들이 한자를 좋아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발간했다. '한자가 그림문자라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자를 가르쳐 주면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착안한 이 책은 고대신화 등의 옛이야기로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깨다·1만8800원>

▲그래, 나 여자가=스바루는 미술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하늘을 색칠했다. 그러나 친구 스키는 분홍색을 여자가 좋아하는 색이라며 놀려댔다. 스바루는 화가나서 그만 "그래, 나 여자가"라고 선언해버린다. 그때부터 스바루의 학교생활을 꼬이게 시작한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하면서 성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본다. <풀빛·1만3000원>

질 베른부터 태권 V까지 한국공상과학의 다양한 이야기

공상과학의 재발견

최애순 지음



'마징가 Z', '우주소년 아톰', '은하철도 999', '갯디' 등 어릴 적 주제를 열심히 따라 부르며 즐겨봤던 만화영화는 알고 보니 모두 일본산(産)이었다. 이 틀바구니 속에서 1970년대 탄생한 '로보트 태권 V'는 2020년대까지 부활을 거듭하며 추억을 소환중이다. 상상 속의 거대 로보이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의 '로보트 태권 V'는 한국 공상과학 만화의 히트상품 중 하나다.

한국공상과학의 역사를 탐구한 '공상과학의 재발견-소설과 만화로 들여다본 한국 공상과학 연대기'가 나왔다. 대중문화과 본격문학의 '경계'와 한국 대중문학의 계보와 문화를 고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저자 최애순 계명대 타볼라라사 칼리지 교수는 '조선의 탐

정을 탐정하다'(2011)를 펴낸 후 줄곧 SF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한국에서 SF 장르는 오랫동안 비주류였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놓은 김초엽 작가를 비롯해 전선란·배명훈·김보영 등 인기작가들의 활약에 힘입어 독자층을 넓히고 있다.

저자가 SF라는 용어 대신 '공상과학'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서구의 장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욕망이나 감성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책은 일제강점기 번역소설부터 현대 공상과학만화까지, 질 베른부터 태권 V까지 한국공상과학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은 질 베른의 '해저 2만리'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1장 '서구를 향한 동경:공상과학의 시작', 시간 여행기계발명과 디스토피아 등에 대해 다룬 '이상사회 건설과 유토피아 지향:1920년대 과학소설', 과학의 대중화, 생활화 운동을 주창하며 1933년 창간된 '과학조

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발명·발견에 대한 기대:1930~1940년대 '과학조선' 등 6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1929년 발표된 김동인의 소설 'K박사의 연구'는 한국 최초의 SF 소설로 평가되는 작품으로 독일이 오줌에서 인을 발견한 사건에서 착안했다. 주인공은 풍으로 식량을 개발하려는 터무니없고 허황돼 보이는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는데 저자는 이 작품에 대해 "발명과 공상의 관계를 현실감 있게 포착해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한다.

책에서는 또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바닷가에 출몰한 우주 괴물과 맞서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해방 이후 최초 SF 한나원의 '잃어버린 소년'과 수많은 영웅 SF 만화의 원조 '정의의 사자 라이피아'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그밖에 '우주소년 아톰'과 '태권 V', SF 유입의 통로였던 공상과학모험전집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서해문집·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칼라 최고화질

-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인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농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생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방동청고 200평 (급방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의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이발사 구함

☎010-8610-0211

| 근무지 | **미국LA**

| 월급여 | **7백만원**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농**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산행안내

7월16일(토)

▲광주호신회 7월16일(토) 평영 육지도 섬산행 05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시 롯데백화점 06시1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010 4621 2166, 010 6702 9796

분실공고

• 발코니화장, 플러스옵션 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70 무등산 자이언 어울림 1단지 110동 1901호

• 계약자 : 김혜은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7월 15일